



부활하라 'LG 천적' 나성범

수도권 9연전을 마친 KIA가 18일부터 LG, 한화와 홈 6연전을 갖는다. 부상 복귀 후 타선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나성범의 반동이 KIA 1위 수성을 위해 필요하다.

〈KIA 타이거즈 제공〉

TIGERS 타이거즈 전망대

‘호랑이 군단’이 안방에서 1위 수성을 나선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주 SSG 랜더스, KT 위즈와의 원정 6연전을 4승 2패로 마무리했다. 승률을 높이면서 1위를 탈환한 KIA는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홈 6연전을 갖고 자리 지키기에 나선다.

지난주 시작은 미약했지만 마무리가 장대했다. 11일 ‘행운의 오심’에도 연장 승부에서 SSG에 끝내기 패배를 당하면서 출발이 좋지 못했다. 하지만 KIA는 KT와의 주말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하면서 기분 좋은 마무리를 했다. ‘최고참’ 최형우가 뜨거운 방망이로 KBO의 새 기록을 작성하면서 팀의 1위 탈환을 이끌었다. 지난주 5경기에 나온 최형우는 3개의 홈런 포함 10안타로 0.476의 타율을 기록했다. 두 경기에서는 무려 6타점을 한 번에 쏟아냈다.

최형우는 12일 SSG전에서 0-5로 뒤진 5회 2사 만루에서 2타점 적시타를 기록하면서 두산 이승엽 감독의 4077루타를 넘어 KBO 최다루타 주인공이 됐다. 기록을 새로 만든 다음 타석에서도 역전 적시타를 날린 최형우는 7회에는 스티어링까지 기록하면서 6루타와 6타점 활약을 했다. 최고참의 화력소로 KIA는 이날 다시 1위로 복귀했다.

최형우는 14일 KT전에서 ‘기록의 사나이’가 됐다. 1회초 2사 1루서 KT 에이스 쿠에바스를 상대로 최형우는 우측 담장을 넘기면서 1600타점을 채웠다. KBO에서 처음 만들어진 1600타점 기록

지난해 LG전 4할 타율·10타점...자신감 회복 관건 1.5게임차 2위 LG·상승세 한화와 안방에서 6연전

이다. 최형우는 이후에도 안타행진을 이어가면서 4안타 6타점 활약으로 새 기록 달성을 자축했다.

김선빈이 우측 내복사근 미세 손상으로 빠진 자리에서는 서건창이 역할을 하면서 8개의 안타로 주간 타율 0.500을 찍었다. 소크라테스도 8개의 안타를 만들었고 수비에서도 집중력을 발휘했다. 베테랑들의 활약으로 다시 선두로 복귀한 KIA는 2위 LG를 상대로 ‘1위 지키기’에 나선다. 승락하는 2위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LG가 1.5경기차 2위, 두산이 2경기차 3위다.

LG는 지난주 4연패에 빠져 2위에서 밀려나기도 했지만, 16일 롯데를 상대로 5점 차의 승부를 뒤집고 끝내기 승을 거두면서 2위로 복귀했다.

상승세의 두 팀이 챔피언십필드에서 뜨거운 순위 싸움을 펼치게 됐다.

KIA의 시선은 나성범에게 쏠린다.

나성범에게는 잊고 싶은 한 주였다. KT와의 주말 3연전에서 나성범은 홈런은 기록했지만 이계 유일한 안타였다.

11일 연장 승부에서는 SSG가 김도영을 고의사구로 거르고 나성범과의 대결을 선택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SSG의 의도대로 나성범은 초구에 파울 플레이 아웃으로 물러나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지난해 좋았던 기억을 살려 나성범이 1위 수성에 앞장서야 한다.

나성범은 지난해 LG를 상대로 0.471의 타율을 기록하면서 10타점을 만드는 등 강세를 보였다.

올 시즌에는 LG전에서 1타석만 소화했다. 4월 28일 부상 복귀전 이후 아직 LG와의 대결이 펼쳐지지 않았다.

1타석이었지만 나성범은 이 경기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발휘했다. 나성범이 대타로 잠실 그라운드에서 등장하자 KIA 팬들은 뜨거운 함성으로 관중석을 달궜다. 나성범도 깜짝 놀란 환호성이었다.

기대 속에 출발했지만 올 시즌 나성범은 39경기에 나와 0.228의 타율에 그치고 있다. 나성범이 뜨거운 활약으로 다시 한번 관중석을 들끓게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말에는 ‘화제의 팀’ 한화와의 눈길 끄는 승부가 펼쳐진다. 올 시즌 KIA는 한화에 4승 1패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즌 초반과 상황이 달라졌다.

김경문 감독으로 새로 팀을 꾸린 한화는 달라진 뒷심으로 중위권 싸움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KIA와 한화는 흥행의 중심이기도 하다. 한화는 16일 시즌 27번째 매진을 기록하는 등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KIA도 홈 경기가 열릴 때마다 매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원정 9연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돌아온 KIA가 뜨거운 홈 6연전을 예고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정해영 올스타 팬 투표 1위

전상현·김도영 등 7명 ‘베스트 12’ 선정

KIA 타이거즈 마무리 정해영이 팬 최다 득표로 올스타전 ‘베스트 12’에 선정됐다.

KBO가 17일 올스타전 베스트 12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KIA에서는 ‘팬 투표 1위’ 정해영과 함께 전상현(중간투수), 이우성(1루수), 김도영(3루수), 박찬호(유격수), 나성범(외야수), 최형우(지명타자) 등 7명이 나눔 올스타 ‘별 중의 별’이 됐다. 전상현, 이우성, 김도영, 박찬호는 개인 첫 베스트 12이다.

정해영은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3주간 진행된 팬투표에서 총 13만9만 6077표를 얻어 136만 2773표를 기록한 두산 양의지를 3만 3304표 차이로 누르고, 팬투표 최다 득표 타이틀을 차지했다.

정해영은 마무리투수 부문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올스타전 이후 첫 최다 득표 1위 마무리라는 영예도 차지했다. 2022년 양현종에 이어 KIA 투수로는 두 번째 팬 최다 득표도 기록했다.

팬 투표 1위를 달렸던 양현종(선발투수), 김태균(포수)은 선수단 투표에서 각각 한화 류현진과 LG 박동원에게 밀리면서 ‘베스트 12’ 선정이 무산됐다. 소크라테스도 나눔 올스타 외



정해영

김도영

야수 부문 팬투표에서 기욤 도순에 앞섰지만 선수단 투표에서 역전을 허용했다.

류현진(97만9867표)은 팬투표에서 양현종(128만6133표)에 크게 뒤졌지만, 선수단 투표에서 155표를 차지하면서 77표의 양현종을 0.62점 차로 제쳤다. 류현진은 전 포지션에서 가장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빅리그 진출 직전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자 개인 통산 5번째 베스트12를 이뤘다.

한편 KBO는 나눔 올스타 LG 염경엽 감독, 드림 올스타 이강철 KT 감독의 추천 선수 13명씩을 더해 26명의 올스타 명단을 작성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연습구장 생겼다...선수도 팬도 ‘환호’

광주축구센터 준공 기념 오픈트레이닝 천원 잔디 2면 등 환경·시설 개선 가브리엘 ‘더 좋은 퍼포먼스 선물’

광주FC가 16일 광주축구센터 준공을 기념하는 오픈트레이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광주FC의 숙원사업이던 축구센터의 준공을 팬들에게 알리고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배수 문제로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광주축구센터는 광주시의 지원으로 재조성 공사를 마치고, 천원 잔디 2면과 스포츠 조명설비를 갖춘 훈련 시설로 탈바꿈했다.

센터 입구에는 이날 방문한 팬들의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도록 ‘커피차’가 마련됐다.

행사는 잔디 살수 장치인 스프링클러 시연을 시작으로 센터 소개 브리핑, 선수단 입장, 강기정 광주시장, 노동일 대표이사, 이정효 감독의 인사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광주 선수단은 두 줄로 선 팬들 사이로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환호와 응원 속에 센터로 입장했다. 강기정 시장은 “연습구장도 제대로 없었는데 광주FC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대견하다. 새롭게 연습구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FC가 16일 광주축구센터에서 팬과 함께하는 오픈트레이닝 행사를 열었다. 어린이 팬들이 새로워진 훈련장에서 공을 차고 있다(왼쪽). 광주FC 가브리엘이 팬이 전달해준 ‘광브리엘 주민등록증’을 들고 있다.

이정효 감독은 “그동안 광주 축구인들이 엄두도 못 냈던 것을 구단주 강기정 시장님과 새로오신 노동일 대표님께서 해내주셔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다. 이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광주 시민들을 비롯한 팬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우리가 힘을 냈다”고 전했다.

선수단은 팬들과의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공개 훈련도 진행했다. 센터 한쪽에서는 강기정 시장과 어린이 팬들이 함께 공을 차며 훈련장을 직접 체험했다.

광주 서포터즈 회장 김식 씨는 “감개무량하고 북

잡한 감정이 들었다. 센터에 입장할 때의 선수들 표정을 보면서 팬으로서 뿌듯하기도 했다. 앞으로의 경기가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동일 대표이사는 “영광스러운 이 현장을 선수단에게 만들어 줄 수 있었던 건 팬들 덕이다”며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다. 새롭게 훈련장을 마련한 만큼 선수들에게도 새로운 각오가 생길 것 같다. 첫 출전하는 ACL에서도 잘 싸울 수 있는 자신감이자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새로워진 센터에서의 첫 훈련을 마친 주장 안영



광주FC가 16일 광주축구센터에서 팬과 함께하는 오픈트레이닝 행사를 열었다. 어린이 팬들이 새로워진 훈련장에서 공을 차고 있다(왼쪽). 광주FC 가브리엘이 팬이 전달해준 ‘광브리엘 주민등록증’을 들고 있다.

규는 “이전에는 잔디 상태가 안 좋았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서 훈련하는 게 재밌었다. 또 선수로서 뿌듯함도 느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가브리엘은 한 팬이 만들어 전달한 ‘광브리엘’이라고 적힌 주민등록증 모형을 발견하고 환한 미소를 보였다.

가브리엘은 “너무 예뻐서 행복하다”며 “15일 김천상무전을 이겨서 그 열기랑 팬분들의 행복함이 느껴져서 정말 기분 좋게 훈련했다. 훈련장도 좋고 확실히 선수들이 더 좋은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진아 기자 jinggi@

10년만에 0.06초 단축 男 400m 계주 ‘한국신’

광주시청 김국영, 고승환과 이시몬(안양시청), 이용문(서천군청)으로 이뤄진 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대표팀이 10년 만에 한국 신 기록을 썼다.

14일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53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400m 계주 남자 일반부 경기에 초청팀 자격으로 나선 대표팀은 38초68의 기록으로 1위를 달성했다.

이들은 2014 한중일 친선대회(오경수, 조규원, 김국영, 여호수아)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김국영, 고승환, 이재성, 이정태)가 작성된 38초74의 한국 기록을 0.06초 당기며 남자 400m 계주 기록을 새로 썼다.

하지만 한국의 남은 경기에서 ‘38초30’의 기록을 깨야만 파리 올림픽 출전을 기대할 수 있다.

파리 올림픽 육상 남자 계주 400m의 16개 출전권 중 두 장은 2022년 12월 31일~2024년 6월 30일 사이에 좋은 기록을 낸 팀이 받는데, 아직 출전권을 얻지 못한 나라 중 기록순위 1, 2위는 브라질(38초19)과 트리니다드 토바고(38초30)가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처음이자 마지막 올림픽은 당시 개최국 자격으로 출전했던 1988년 서울 올림픽이다.

한편,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정선에서 ‘제78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열린다. 대표팀은 선수들의 몸상태를 점검해 출전 여부를 결정지를 계획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